

생명샘소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지난 주에 에스라 하셨나요?** 행하는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한, 귀한 경건의 훈련이 되길 축복합니다.
3. 오늘 예배 후 교제의 식탁을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10월 26일 토요일 각 목장 모임 있습니다.
5. 다음 주일(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6. 교우소식

문종현 집사님/지난 주일 교회 방문
 최상천 장로님 내외분 여행 중에 계십니다. 10월 31일 시카고 도착 예정
 켈리(김대회) 사모 건강하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현식(조은영 집사님 조카) 시카고 대학에 교환 학생으로 있습니다.
 윤수찬/강선옥 집사님(윤하영 부모님) 이번 주 토요일 한국 귀국하십니다.

10월 예배 위원

안 내	한규철		조은영		
기 도	조창(6)	한미숙(13)	박승화(20)	한광기(27)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교회 학교	청년회	에스라 운동	금요 제자 양육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2시	수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행하는 교회



골로새서 2장 6-7절

- > 뿌리를 박으라
- > 세움을 받으라
- > 굳게 서라

6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 일 예 배 2024년 10월 13일 오후 1시

묵상 기도 / 다같이

*찬송 / 만유의 주 앞에 / 찬송가 22(신) 26(구)

*성시 교독 /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나의 생명 되신 주 / 찬송가 380(신) 424(구)

기도 / 박승화 집사

성경 봉독 / 디도서 2장 11-15절, 고린도후서 6장 1-2절 / 다같이

특송 / 윤수찬 집사님 가족 찬양 / 나의 영원하신 기업

말씀 선포 / 은혜 받을만한 때 / 박화신 목사

찬송 /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 찬송가 445(신) 502(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1, 2절 / 찬송가 413(신) 470(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요약

1.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릅니다.
2. 이 '은혜'는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나게 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양육의 은혜가 서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한 은혜'입니다.
3. 이 은혜는 우리를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합니다.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힘을 누리길 늘 기다리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IL 60005
 목회자: 박화신 목사/KM 김대회 전도사/EM
 Tel) 630.673.9207

생명샘에 스라 부흥 운동

기도 오늘까지 저를 강건하게 붙드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호흡하게 하시며, 먹고 소화할 수 있게 하셔서, 건강하게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각하게 하시며 판단하게 하셔서 이시간도 주님 앞에서 찬송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의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세대의 욕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말씀의 힘이 더욱 강하게 자리하게 하셔서 주님의 용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 찬송가 88(신, 구)

말씀 읽기 창세기 3장 1-19절

1. 뱀(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접근하나요? 어떤 질문으로 하와에게 대화를 시작하나요(1절)?
2. 하와의 대답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3절)? 창세기 2장 17절과 신명기 12장 32절을 참조하여 답을 내리세요.
3. 하와의 첫 큰 실수를 본 뱀(사탄)은 무엇이라 하와를 유혹합니까(4절)?
4.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열매는 어떻게 보였나요(6절)?

정리하기 사탄의 세력은 '정욕'이라는 것으로 우리 마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력은 아주 강력하여 감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잘못 생각하게 하며, 잘못 배우게 하며, 결국 잘못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나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지요. 오히려 더 지혜롭고 이성적이며 합당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잘못된 성경적 아집이 잘못된 자아로 자리하게 됩니다. 심하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죄성이지요. 말씀에 올바르게 뿌리박고 세움 받아 감사하는 증거가 우리에게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주기도문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 요한복음은 신비의 말씀의 존재를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이지요.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질서를 과학이라 한다면, 복음의 시작은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 전의 존재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 후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복음의 결론이지요. 영원 전의 말씀이 예수요, 영원 후의 생명의 근원도 예수입니다. 즉 말씀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 이 말씀을 전하시고, 살아내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시기에 예수님은 말씀을 살아내셔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삶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복종'으로 표현합니다 / 빌2)

- 요한은 21장의 내용으로 줄곧 이 '말씀'되시는 예수님의 정체와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으로 인도하시며, 영원을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답게 현재를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 당신께서 부르신 사람들(교회)에게 단 한가지를 마지막으로 요청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정작 당신께서는 이제 막 하늘로 올라가실텐데 말이지요.... 따를 선생님이 이제 보이지 않아도, 선생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교회입니다.
- 그저 한 장소에서 같이 있는 것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무엇을 하는 것도 따르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다'는 것은 한 길에서, 한 방향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교회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표현되는 것이 아니며, 나타낼 필요도 없는 것이며, 행할 수는 더욱이 없으며, 그냥 인격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당신을 따르는 행함은 바로 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도모하길 원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더불어의 '행함'이 될까요? 우리의 예배와 교제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이 아름다운 더불어의 행함이 되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